



온 곳이 없기에 갈 곳도 없어서 영원한 부처님 오신 날일세!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을 지금 큰스님 법문을 듣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질문드리야 될 내용들을 미리 다 법문 중에 말씀해 주셔서, 자비로우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감정을 정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되고 흥분되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법형제님들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법형제님들이 정말 큰스님 말씀과 같이 정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늘상 그 자리고 늘상 제자리인 것만 같아 답답하여 어떻게 몸 돌 바를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릴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숨이 불을 자리도, 업이 불을 자리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중생은 몇억 겁을 거치면서 숨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은체가 없다고 그러는데체가 없는 마음에 어떻게 숨이 불어 가지고 이 생애 와서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큰 깨침을 얻으셨다는 어른들께서도 끝까지 그 숨이 남아 가지고 가끔은 부지불식간에 그 숨의 행동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큰스님 그 얘기 하는데 뭐가 그렇게 겁니까? 하하하. 첫째는, 무조건 "네가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거다." 하고서 관하는 거고, 둘째는 가정살이 돌아가는 것 전부 '그놈이 하는 거니까.' 하고 관하는 거죠. 그 놈이 하는 건데 뭣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네? 이거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건 잘 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것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진짜 우주간 법계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일체제물이 한 골수에 들어서 한자리를 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소

리 한 겁니다. 내일 죽는다, 이따 죽는다, 우리 식구가 다 멸망한다 이러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결사적인, 나를 버린 그 마음이 정동으로만 들어간다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그게 다 욕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닦치는 대로 능통하게 넘어가면서 진짜 칼을 악으로 다 뺄 때는 그냥... 이거 보세요, 악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칼을 썩 뺏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칼을 썩 뺏을 때는 수많은 중생들을 다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한 칼로다가 부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내일 죽으면 어떻고 이따 죽으면 어떻고 식구가 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아휴 참! 이 세

상이 길, 그냥 길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 뿐이에요. 왜 사나?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가는지 알아야 답답하지 않다 이 소립니다. '야! 이거 뭐 캄핑 와서 잠시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우주간 법계에 다 통신이 되는구나. 이렇지인데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랴.'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소 한 마리를 잡는 다 해도 걱정이 없고, 소 한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진 대도 걱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놈의 거 하나하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건지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이판 사판이예요. 하하하. 두 가지뿐이야. 죽느냐 사느냐 요거뿐이지 거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
어떤 스님이 날더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 이 토굴의 문에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난 그런 것도

모르고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못은 왜?" 그러니까 "들 어간 뒤에 바깥에서 못을 박아서 못 나오면, 죽지 않으면 얻을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얻고 얻지 못하면 죽고, 이거 둘뿐 아닙니까?" 이거야.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요, 정말 아주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고 너그럽게 두루 할 수 있고, 항상 싱그레 웃고, 남이 갖 미쳤다고 할 정도로 싱그레 웃고 길을 지나갈 수 있고, 소 동구리를 봐도 싱그레 웃을 수 있어요. 저 거 가없다, 저거 죽으러 가지, 뭐 이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왜? 아주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 한 마리를 아니, 어떤 거든지 한 마리가 모두 죽었다 그럴 때 그것을 빗발 방울로 친다면 한 끝자리에 다 모였다 해도 한 끝자리에 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일 뿐이지, 한 그릇이지 그게 두 그릇입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은체가 없고 무량해. 그

래서 무량심이예요, 일심(一心)이자 무량심이고, 무량심이자 그 묘법이라. 무심도법(無心道法)은 그렇게 무량해서, 지금 수만 마리가 죽으러 간다 하는데 불쌍해서 염불을 해 주고 그러면 그건 벌써 공부 못하는 사람 들입니다. 지금 수십, 수백 마리가 죽으러 가는 거죠.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만 만들어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그냥 나가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돼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거쳐서 나가는 인간은 나와서도 정말 사람 노릇을 하고 이 세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지략과 야량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뭐가 답답해?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아들을 두면 그 아들이 장관도 못 하겠다! 장관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질문자2(남) 그런데 큰스님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는 금방 제가 부처가 될 것만 같고 하늘을 날 것 같고...

큰스님 이것 봐. 부처가 되려고 하지도 마라. 이 세상에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 또 생길 테니까, 응? 그러니까 그대로,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냥 수순히 걸어가. 그냥 딱 세우곤 입 딱 다물고 그냥 걸어가다가 딱 닦힐 때 '네가 하는 거지.' '너!' 하고선 말 안 해도 '너!' 할 때 그건 그냥 그대로 깜짝할 사이야. 그러니 재생이 돼서체가 나올 때는 거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있었지만 자동적으로 불이 확 붙어서 끓는 쇠가 돼 가지고 직접 바로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 이 도리를 어떻게 공부하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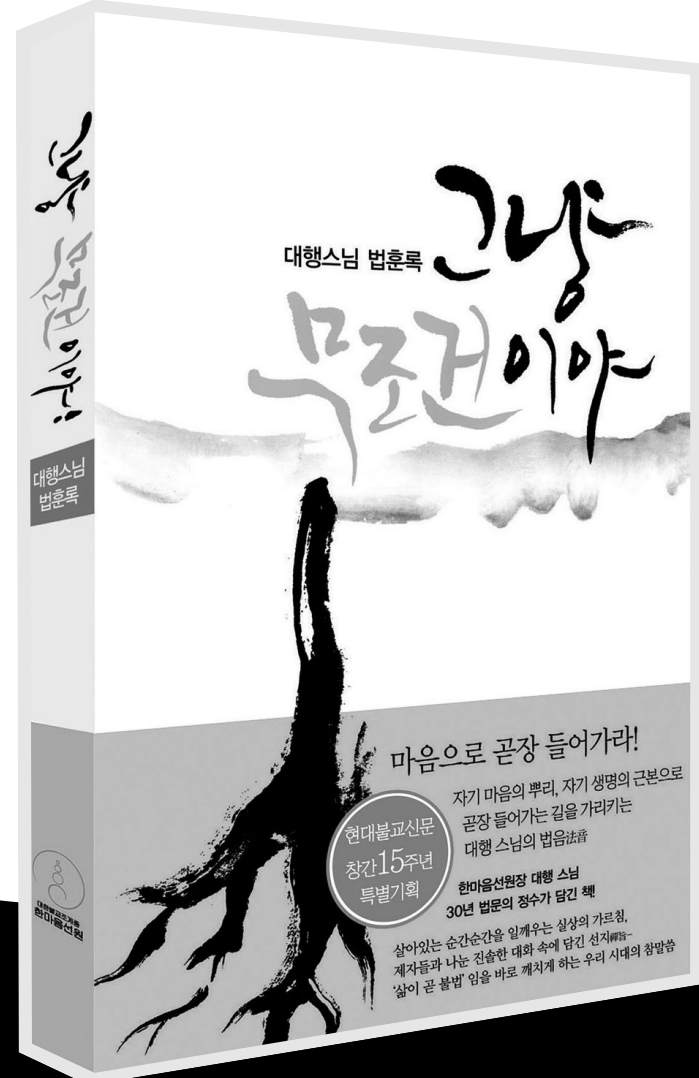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 가난 때문에, 병고 때문에, '잘 살아야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 하지 마라. 진짜! 진짜! "안 돼!" "이거는 어떠한 억겁에 처해



그림 · 최주현

29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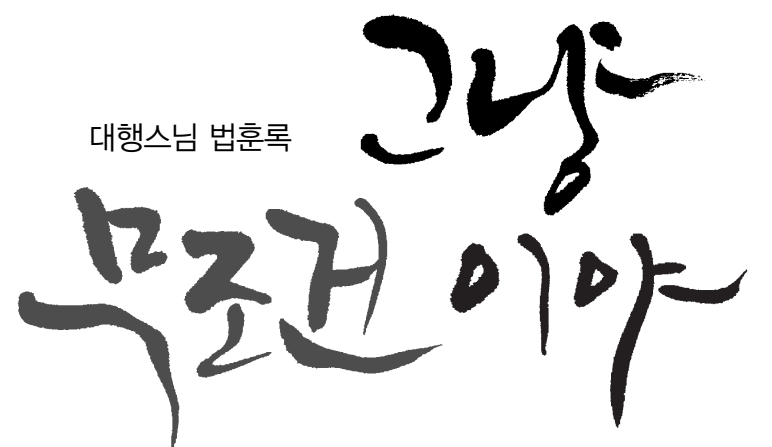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서 그대로 4월 8일입니다!

30면에서 계속

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하란 말이야. “안 돼!”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때문에 약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 그러곤 그냥, 손을 번쩍 쳐들어서 그냥 쳤단 말이야. 이게 진짜 깊은 물이 되기 때문에 큰 배가 뜰 수 있고, 큰 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중생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첫째 일요일은 항상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쓰리고 아픈 상처를 아물리고, 내 몸에 들어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천백억 화신으로 들락거리면서 나와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전 세계를 융화시킬 수 있어야겠지. 전 세계를 융화시키고 견지려면 또 우리가 집을 잘 지켜야 하지. 지구집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소임이다 이거야. 우리의 집이니까. 내 몸도 그래. 여러분이 부모에게 뼈를 받고 살을 받았는데 인간이 돼 가지고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어떻게 효가 될 수가 있겠느냐? 부모에게 잘 해 드리고 잘 입혀 드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거야. 내 몸을 잘 간직해서 건강하고 진짜 인간이 됴으로써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거다 이거야.

부모는 자식한테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아니, 오늘 그런 말도 나오게 생겼지. 봐요. 오늘 뭐, 어린이날이랑이랑이? 난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애들 오면은 뭘 좀 줘야지.” 그랬더니 “오늘 어린이날이 돼서 다 싸냈는데요.” 그래서 “아휴, 너희들이 나보다 천 배 만 배 낫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얘기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는 부모든지 자식이 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병 들었다 그러던데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거는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나가서 다녀도 좋은 게 없고 아무리 우스운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모가 돼 버리고 맙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어디? 그러니까 막 굴리지 말라 이거죠. 젊은이들도. 자기 몸 막 굴리면, 자기 생각대로 막 굴리면 그건 효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충성도 못하죠. 또,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회중생(下化衆生)이라고 그랬잖아. 자기 몸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을 제도 못할 땐 자기 집이 있으나 떠나지, 그거. 제도 못하면 자기 집도 망가지지, 자기 집 속에서 사는 자기의 의식들도 다, 인연들도 다 그냥 끊어지는 거야.

미래의 정신세계가... 미래라고 그러니까 미래지 여러분이 정신세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고, 과거 자리도 이 자리에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자리가 미래, 과거 자리가 현재로 돼 가지고 돌아가니까, 불바퀴처럼

돌아가니까, 바로 법바퀴가, 여러분이 공(空)해서 자꾸 돌아가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니까,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에 꼬달라지 않고 그러다면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요, 오늘 이 바로 영원한 그날이죠.

이번에 “사월초파일 메시지를 쓰세요.” 그래서 “그걸 왜 벌써 쓰냐? 4월 8일은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모두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에.” 그러니까 먼저 써야 된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받아 써.”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또 자기가 해 놓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님더러 읽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그거 누가 했는지 3단계로 곧잘 했구나.”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4월 8일은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서 그대로 4월 8일입니다. 왜냐? 4월은 바로 동서남북 전체를 말하고 8일은 유(有)·무(無), 즉 말하자면 사무 사유(四無四有)가 한데 합쳐져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해

때로는 무조건 말기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몰락 놓으라, 무조건 말기라는 데 생각이 미치는 그놈하고, 말기는 높은 누구이며 말는 높은 또 누구냐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결국은 말기는 자와 말는 자가 모두 나 자신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놓고 말기는 거기에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만 놓는 것도 말기는 것도 없는 셈이 되는데, 큰스님께서 “놓아라 놓아라” 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큰 솔에다 팔죽을 쑤는데 말입니다. 팔죽 방울이 너무 많거든. 수도 없이 그냥 막 끓여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배 속에서 수도없는 생명 의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놓는 데도 한군데, 나오는 데도 한군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방울 조 방울, 요 방울 조 방울이 연방 나오는데 한군데서 나와서 한 가지로 고정

있으니까 가설이고, 아들이라는 거 마누라라는 거 알지, 어머니라는 거 알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절친하면 절친한 대로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가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생각을 그렇게 하는 동시에 바로 식구들까지도 다 통화가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벌써 ‘난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곤 저절로 들어오죠. 자동적이예요, 그거.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람을 다뤄야 그게 이심전심이예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돌아간 다 이겁니다.

애들이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면 어른이 생각할 때 천부담만부담할지라도 “그래,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해 봐라.” 그러고선 아주 좋게 그냥 받아 주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만 경험하고 딱 돌아서계끔 마음에다 관해 놓으면, 가

잘못하래도 안 해요.

이것이 부모가 삼분의 일 가르치는 일이고, 삼분의 일은 자기가 자작하며 익히고 다닌다. 바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잡아서 나가는 거, 삼분의 일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3단계가 한데 합쳐지게 되면요, 이랬어 저랬어도 안 합니다. “아버지.” 그러곤 좋아서, 말할 땐 무릎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말하고, 또 재밌게 얘기하고 그럴 때도 이랬어 저랬어, 마구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존경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스무 살, 스물하나 둘, 요 정도가 예전 서른 살하고 맞먹는단 얘기죠. 지금 시대가 그만큼 됐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 같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자녀들을 못 보고 그냥 나갈 때는 반드시 몇 자 써서 “애, 아무개야!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 놔오. 나 그걸 데워서 먹어라. 그리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좀 일찍 들어와서 배고프지 않도록 해라. 너무 피곤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써서 상에 놓아두고 나가면 자식들이 그걸 볼 때 차마 그 저버릴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자기 부모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이걸.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지금 외국이나 한국이나 너무들 식막하게 사는 것 같아서입니다. 외국 가면 자녀들이 그냥 그, 미약중독 뭐 이런 것이 돼 가지고요, 부모네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지금,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사회자 큰스님의 높은 법문을 받들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도 또 예정 시간보다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많은 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다음 법회 날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저희들을 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아니 회장님, 내가 불들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나를 불들고 있습니까? 불들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내가 다 불들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우리가 서로 웃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한 말씀도 안 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아유, 질문하는 게 밀렸더니 언제까지 밀릴까요? (대중 웃음)

※ 위 법문은 91년 5월 5일 법회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
가난 때문에, 병고 때문에,
‘잘 살아야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 하지 마라.

서 4월 8일입니다. 그 ‘오신 날’이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뜻을 깊게 깊게 새겨야 합니다. 바로 영원한 오늘이죠. “은 곳이 없기에 갈 곳도 없어서 영원한 부처님 오신 날일세.” 했단 말입니다. 이 못난이가 잘했죠? 어때요? 허허허... 그러니 여러분도 못난이죠? 나도 못났고요. 부처님도 전부 못났어요, 아주.

못났으면서도 가섭(迦葉)에게 다보탑(다자탑, 多子塔)의 반을 탁 내주면서 앉았던 말입니다. 아 참! 그것은 이 세상에 조금도 버림이 없는 한자리였습니다. 한자리.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반 자리를 내주시는 그 뜻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항상 잊고 돌아가기만 하지 그 뜻을 한 번도 새겨 본 예가 없어요. 알기야 뭘 볼지라하면 아마 열 살만 넘었다 하면 다 알 겁니다. 그 소릴 들어서. 그런데 행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 깊은 속을 모른다 이겁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3(남) 스님! 스님도 못났고 저희들도 못났다고 그래서, 못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 저희들을 공부시키면서 몰락 놓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되게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마는 천차만별로 다른 방울이 그냥 솟아 나와요, 그 죽술에서 죽방울이 말입니다. 방울은 작고 크고 달라도 죽술에서 나오는 거니까 죽술에다가 뇌라, 이런 것인데, 죽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하고 죽방울이 나오는 대로 주걱으로 쳐다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것이 다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살리하면서 별게 다 나오는데, 병고로 인해서 걱정, 가난해서 걱정, 회사에 가서 상사들한테 꾸중을 들어서 걱정, 또 애들이 속을 썩여서 걱정, 또 부부기간에 싸워서 걱정, 돈이 없어서 걱정 뭐, 걱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죽방울은 죽방울인데 그렇게 다른 죽방울이니 그것들이 다 한 죽술에서 나온다는 것만 믿고 알아라. 그러면 거기에 다 놓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솔의 죽방울이니 걱정을 하지 말고, 당장 애가 나가서 죽는 다 이러더라도 걱정을 안 하고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거를 안다면 그애는 나가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벌써 전체 통신이 되기 때문이죠. 가설이라고 그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내 형이라는 거를 알고

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다 해 보고는 “아이, 아버지, 나 그거 고만두겠어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고만두니?” 외려 그러거든. 그러면은 “아, 이만저만해서 그러니까 저 다른 걸로 하겠어요.”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과 자비, 의리, 이심전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관심,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그냥, 나가서 조금만 잘못했다 하면 그쪽 이유는 듣지도 않고 “아이, 이놈의 새끼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왔어? 공부하러니까! 이 아버지는 땀 흘리고 벌어들여 너희들 공부시키는데...” 이럽니다. 누가 아니라냐요? 하하하...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요놈 새끼, 뭐 어디 가서 자고 들어와?” 그쪽 사정은 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먼저 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 얘기부터 듣고, 잘못됐으면 “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주인공에 맡기는 거, 또 그렇지 않으면 “애, 그렇게 해서 못 들어왔구나. 그건 참 잘못했구나. 네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참 잘했다. 사나이가 그런 의리도 없이 어떻게 살아나갔느냐.” 아, 이렇게 좀 북돋아 주면 나가서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s.co.kr / E-MAIL : sungjongsas@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